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에서 만나는 특별한 동물

스포츠 웨이브

MZ세대가 사랑한 스포츠



#

해시태그 이벤트

여러분이 서울에서 주로 운동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에서 열심히 운동한다. 2. 해시태그와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한다. #서울시체육회 #서울스포츠 #나의운동명소○○○
3. 서울시체육회 SNS를 팔로우한다. ▶ 인스타그램: @seoul_sports_council ▶ 페이스북: 서울특별시체육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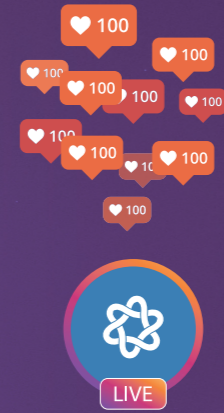
발행일 2023년 11월 1일
발행인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정규혁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이준성 연세대학교 교수
편집 황영찬 홍보마케팅사업단장
 홍보팀 윤영하, 서승환
등록번호 서울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웹진 news.seoulsports.or.kr
전화 02-490-2700
디자인·제작 코콤퍼노벨리㈜
표지일러스트 윤예지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 04 스포츠 웨이브**
MZ세대가 사랑한 스포츠
 1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믿게 하는 스포츠
 2 스포츠 '디깅'으로 나를 드러내다
 3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가져온 변화
- 14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에서 만나는 특별한 동물
- 24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특집**
 대한민국 펜싱 사브르 간판의 금빛 찌르기!
윤지수 선수
 대한민국 체조 마루 금메달 2연패 달성!
김한솔 선수
- 28 서울에서 뛰는 세계인**
 필리핀에서 온 테니스의
서울 달리기
- 32 School Of Sports, SOS!**
 따로 혹은 같이, 우리의 농구
경인고등학교 이윤희 교사
- 36 變變 스포츠**
 학교체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동행
- 38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
 하늘 높은 블로킹, 강력한 스파이크!
배구 동호회 네오클럽
- 42 스포츠는 지금**
 스포츠 ESG 협의체,
 스포츠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 46 글로벌 스포츠 현장**
 미국이 쌓은 대학 스포츠 문화
- 48 자치구체육회 탐방**
 체육을 향한 비전을 펼치다
관악구체육회 김학규 회장
- 50 2023 한강 르네상스 페스티벌**
아쿠아슬론 대회
- 52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 57 회원종목단체장 인터뷰**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이충민 회장
- 58 SSC 뉴스+SSAD 뉴스**
- 63 지그재그 낱말퀴즈**
 퀴즈판에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MZ세대가 사랑한 스포츠

#운동스타그램, #오운완 등의
SNS 해시태그부터 테니스, 골프 등
MZ세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를 즐긴다.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스포츠로부터 얻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침체, 기후 위기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나 자신과 일상뿐.
MZ세대는 그렇게 스포츠에 스며들고 있다.

Comments...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믿게 하는 스포츠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는 MZ세대에게 스포츠는 '갓생'이다. 제한된 시간을 활용해 자기 관리를 하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운동은 내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고 있다는 자기통제의 증거가 되고 있다.



'올로' 가고 '갓생' 온다

2017년 세계를 휩쓸었던 '올로(YOLO)' 열풍에 이어 2020년엔 '플렉스(Flex)'가 유행하며 일시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라이프 트렌드가 이어졌다. 2010년대 장기 불황 시기, 사회에 진출한 밀레니얼세대는 손에 잡히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 등 지금 바로 가질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추구했다. 올로와 플렉스는 타인이 보기에 무의미하더라도 '자기만족적'이고, '즉각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뀐 건 코로나19로 일상이 위협받으면서부터다. 여행을 떠나거나 맛집 탐방을 하는 등 일상의 작

은 행복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이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가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모를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MZ세대는 일상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는 하루를 무탈하게 유지할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투자에 몰두하는 MZ세대의 '갓생' 문화는 급속히 자리 잡았다. '갓생'은 '갓(God)'과 '인생(人生)'을 결합한 신조어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물 마시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명상하기 등 거창하지

않은 작은 목표를 실천하며 일상을 유지할 성취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MZ세대가 갓생을 실천하는 이유다. 올로와 갓생은 '나'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같지만 '현재'가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올로의 '현재'가 '후회 없이 즐겨야 하는 순간'이라면 갓생의 '현재'는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통제 가능한 건 '나 자신'뿐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5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다. 코로나19 전, 한국인의 일

상 걱정거리 중 가장 큰 건 바로 미세먼지였다. 매일 미세먼지 지수를 체크하며 방어해야 했다.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다. 이번 여름에도 이상고온으로 유례없는 더위를 겪었고, UN은 지구가 '지구 보일링(boiling)'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네 번째는 인공지능(AI)이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다. '나의 삶과 직업은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이 엄습하곤 한다. 마지막은 작년부터 길게 드리운 경기침체의 그림자다. 중국 성장 둔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촉발된 경기침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얼마나 지속될지, 삶에 어떤 타격을 줄지 예측도 어렵다.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질문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MZ세대는 이 질문에 대해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는 답을 찾았다. 증가하는 통제 불가능성 속에서 공고한 '나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욕구는 더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베스트셀러에서 자주 보이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방법,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들에 대한 담론이 이를 증명한다. 예전의 '나'는 외부의 시선에 맞춰 '계발'해야

하는 존재였다면 지금의 '나'는 스스로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재정립해야 하는 '관리'의 존재다.

나를 믿게 하는 작은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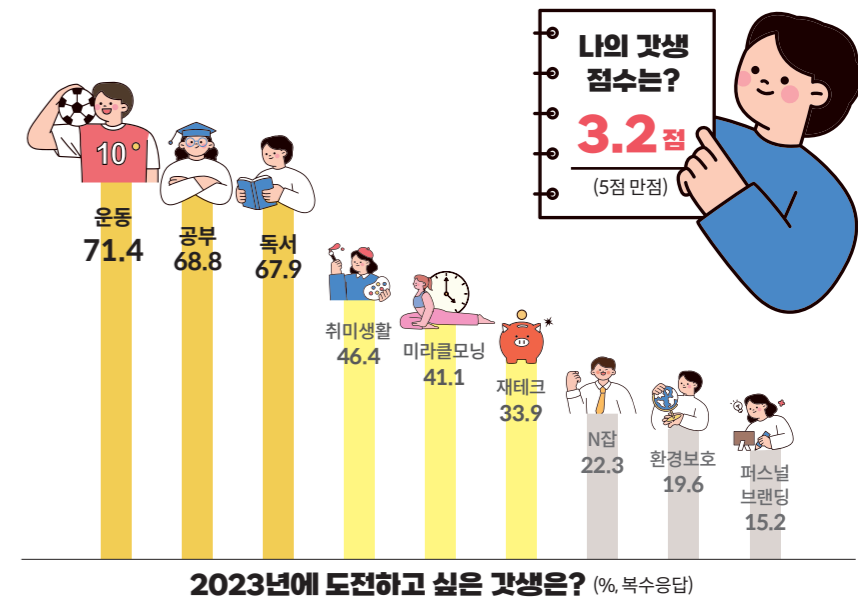
'나의 세계를 공고히 지키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로 귀결된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 MZ세대에게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때가 아닌 현재를 사는 '일상'이다.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한 희생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만보 걷기, 물 2리터 마시기 같은 소소한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서 만족감을 찾는다. 불

확실성의 세상에서 '크지만 불확실한 이득'보다 '작지만 확실한 이득'을 선택한 MZ세대가 추구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취'다.

'갓생'의 핵심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다. 작은 계획부터 실천하는 일상, 즉 매일의 루틴과 계획을 '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작은 습관에도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자기 관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2022년, 새벽 시간을 자기 관리에 활용하는 '미라클모닝'이나 '바프(보디프로필 촬영)' 열풍이 분 것도 '갓생'의 일환이다. 이러한 작은 성취는 결국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할 삶의 주인인 '나 자신'을 믿게 하는 토대가 된다.

MZ가 생각하는 갓생

MZ세대 560명 응답(자료: 성장관리랩 그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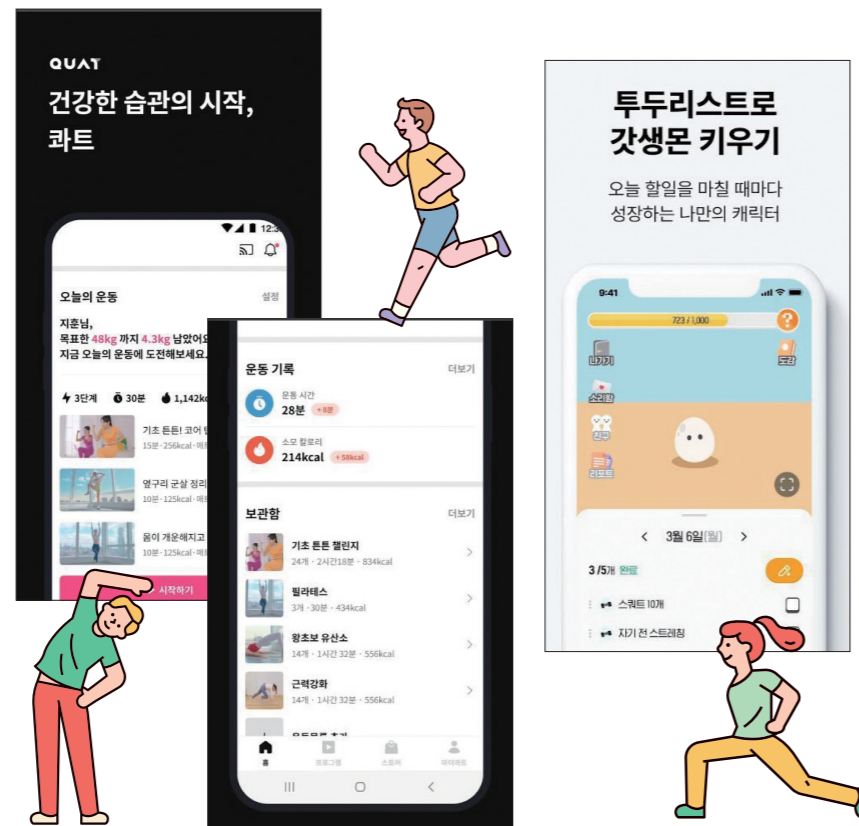
한편, MZ세대에게 ‘갓생’은 곧 스포츠이기도 하다. 성장 관리 앱 ‘그로우’가 지난 1월, MZ세대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도전하고 싶은 갓생 분야 중 ‘운동’이 71.4%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노력의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MZ세대가 스포츠를 통한 ‘갓생 살기’를 해나가는 원동력 중 하나는 ‘인증’이다. 이들은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과 공유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출근하는 루틴을 SNS에 인증하면 칭찬과 부러움의 댓글이 달리는데 이는 MZ세대가 운동을 더 꾸준하고 열심히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처럼 꾸준히 운동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인증하기 위해서는 루틴 만들기는 필수다. 거창한 목표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으로 시작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먼저다. MZ세대들 사이에선 작지만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기 위한 팁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기도 한다.

작은 성취를 돕는 ‘습관 형성’ 서비스 인기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자 하는 MZ세대는 습관 형성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18년 론칭한 앱 ‘챌린저스(Challengers)’는 이용자 스스로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미션을 수행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운동이나 학습, 시간 관리 등 500여 종의 공식 챌린지와 직접 목표를 만드는 챌린지 중 하나를 선택해 도전할 수 있다. 원하는 목

표에 돈을 걸고 미션을 100% 달성하면 참가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추가 상금도 획득 가능하다. 다양한 목표 중 가장 인기 있는 목표는 ‘아침 기상’이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챌린지는 누적 참가자 수가 50만 명에 달한다.

운동 습관을 길러주는 플랫폼도 주목받고 있다. 2022년 포브스코리아가 발표한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건강·운동 부문에서 4위를 차지한

‘콰트(QUAT)’는 ‘5일 운동 습관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코칭하는 구독형 홈 트레이닝 플랫폼이다. 콰트의 트레이닝 영상은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져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분 내외로 구성됐다. 이는 숏폼 콘텐츠에 익숙한 MZ세대의 선호가 높다. 전체 사용자 중 2030세대가 64%를 차지하며 이들이 꾸준히 반복 시청하는 운동 카테고리는 스트레칭으로 나타났다.



콰트(왼), 챌린저스(오) 등 MZ세대를 겨냥한 건강한 습관 만들기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달리기에 푹 빠진 MZ세대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원천
MZ세대가 열광하는 루틴은 일상의 만족감을 얻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일상을 괜찮은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좀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희생보다 확실한 오늘의 성취를 선택했지만 작은 성취를 쌓아나가 더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좀 더 괜찮아진 나’를 외부에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된다. 성공한 운동 서비스들이 ‘운동 습관’을 만들고, 커뮤니티 기능 등을 통해 목표와 성취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그 증거다. 일상의 작은 성취를 통해 ‘하

루하루 좀 더 나아지고 있는 나’를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단한 것은 아니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보며 얻는 성취감과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이 쌓여 ‘나를 믿게 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토대가 된다. 지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열풍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자기 통제감을 갖고 중심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사회의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각자 어떻게 살아야 할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행복이나 성공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 다르다 보니 외부에 흔들리지 않게 나 자신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해져서다.

MZ세대가 운동으로 ‘갓생’을 추구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운동을 실행하는 작고 디테일한 루틴 만들기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는 것도 그래서다. 가볍고 부담 없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 삶의 통제력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나의 일상을 든든히 지지하는 힘이 된다.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운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마음챙김의 원천이다. ☘

글을 쓴 이선미는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많고, 사회현상 뒤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한 오지랖 넓은 16년 차 마케터다. 청소년기엔 음악을, 대학에서는 법학을, 대학원에서는 광고를 공부했다. 트랜더서 <영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와 글쓰기 실용서 <마케터의 글쓰기>를 썼다.

스포츠 '디깅'으로 나를 드러내다

스포츠에 진심인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요즘 세대'에게 스포츠는 건강 증진의 목적을 넘어 '나'를 드러내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스포츠를 시도하며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거나 스포츠 웨어를 구매할 때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열심히 운동해 보디프로필을 찍기도 한다. 이른바 'MZ세대'는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소비를 하며 스포츠 시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

다양한 스포츠로 새로운 경험 즐기기
스포츠라고 하면 등산이나 헬스 트레이닝이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쉽게 접한다. 실제로 요즘 거리에서는 폴댄스, 성인 발레, 크로스핏, 클라이밍 등의 스포츠 종목을 내세운 간판과 홍보를 위한 전단지까지 쉽게 보인다. MZ세대는 일상 속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추세다. 일례로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MZ세대가 관심을 보이는 '요즘 뜨는 대세 운동'으로는 1위 러닝(252만), 2위 크로스핏(147만), 3위 서핑(133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클라이밍(101만), 테니스(93만), 주짓수(92만) 순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스포츠 경험들을 수집하고 이를 취미로 즐기는 현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각종 운동 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이에 발맞춰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신한카드 카드 이용 데이터에 따르면 MZ세대의 주요 운동 영역별 이용 금액이 2019년에 비해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PT가 373%, 테니스장이 336%, 실내·외 골프장이 202%, 스포츠센터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요즘 MZ세대에게는 운동이 일상이자 일상이 곧 운동인 '생활밀착형 운동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선택과 집중 소비로 스포츠 디깅하기

특히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에 깊이 빠지며 몰두하는 '디깅(Digging)'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한 취미라고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진심을 다한다. 이를 향유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보이곤 하는데 이러한 소비 행동을 디깅이라고 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디깅이 부쩍 늘었다. 유



테니스메트로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른 오프라인 매장과 차별점을 뒤 전문가 상담과 맞춤형 스트링 관리 및 레슨 등을 기획했다

명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를 사거나 스포츠 관련 용품을 사는 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그 예다. MZ세대의 스포츠 디깅은 전례 없는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채워가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형형색색의 스포츠웨어를 맵시 있게 차려입고 즐기는 테니스와 골프는 '인스타그래머블(인스타그램하기에 적합하다는 뜻의 신조어)'한 스포츠의 대표 주자다. MZ세대는 스포츠를 즐길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쁜 복장으로 사진을 찍는 재미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스포츠 의류·용품 시장의 성장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일찌감치 MZ세대의 스포츠웨어 수요를 파악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2023년 7월 스포츠 관련 상품 등을 선호하는 MZ세대를 타깃으로 신관 8층을 프리미엄 스포츠·아웃도어 전문관으로 리뉴얼했다. 그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의 잠실 롯데월드몰은 올해 초에 테니스코트가 설치된 약 500㎡ 규모의 체험형 테니스 매장인 '테니스메트로'를 오픈했다. 개인에게 맞는 라켓을 고르는 라켓 컨설팅과 라켓 관리를 돕는 스트링케어 등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MZ세대를 위한 테니스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록하는 스포츠로 성취감 느끼기

MZ세대가 스포츠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성취감' 때문이다. 큰 성공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상 속 소소한 성공들을 찾기 시작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조어 '갓생'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갓생(God+生の 합성어)이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명확한 현실 생활에 집중해 성실하게 사는 삶'이란 의미로 최근 MZ세대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신조어다. 즉, 이들에게 스포츠는 일상 속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모아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 '갓생'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단순한 운동보다는 '기록'하는 스포츠를 통해 순간순간의 작은 성취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일 하는 러닝도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속도와 시간, 거리 등을 기록해 개인 SNS에 올린다. 헬스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넘어서 멋진 몸매를 뽐내고 추억하기 위해 보디프로필로 남긴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MZ세대에게 성취감과 성장의 경험을 선사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정체성으로 기능한다. 평범한 일상에서 진심을 다해 스포츠를 향유하는 MZ세대. 이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스포츠 열풍은 오늘도 계속된다. 🏆

글을 쓴 한다혜는 소비자학을 전공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이다. 베스트셀러인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공저하며 삼성, LG, SK, GS 등 다수의 기업과 소비 트렌드 기반 신제품 개발 및 미래 전략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BS1 라디오 <성공예감> '트렌드 팔로우'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MZ 세대가 관심 갖는 요즘 뜨는 대세 운동 해시태그

- # 러닝 ...252만
- # F45(프사오) ...126만
- # 주짓수 ...92만
- # 크로스핏 ...147만
- # 클라이밍 ...101만
- # 폴댄스 ...92만
- # 서핑 ...133만
- # 테니스 ...93만
- # 프리다이빙 ...62만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검색(2022. 10.19 기준)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가져온 변화

MZ세대에게 스포츠는 건강과 다이어트의 수단을 넘어선 자아실현 방식 중 하나다. 이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운동으로 자신을 표현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스포츠의 풍경도 이러한 MZ세대에 의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스포츠와 함께하는 성장’을 꿈꾸다

MZ세대가 운동하는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성세대의 운동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해야 하기에 하는 운동’을 넘어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운동’을 찾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표현하고 자기 계발을 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진 것이다. MZ세대와 스포츠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표현하는 신조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들은 운동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리며 ‘#운완(운동 완료)’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스포츠를 통한 자기 관리 여정을 기록하고 자랑하는 데 익숙하다. 가장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보디프로필 챌린지에 기꺼이 도전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을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윈데이 클래스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뛰니 뛰니 해도 MZ세대가 스포츠를 대하는 자세를 온전히 보여주는 신조어는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라고 할 수 있다. ‘건강관리=고행’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어 운동에 즐거움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알려진 서려경의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했다

을 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와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MZ세대의 건강한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스포츠로 이룬 건강한 변화

지난 8월 9일, 전 세대가 즐겨보는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한국복싱커미션(KBM) 여성 라이트플라이급 복싱 챔피언 서려경이 출연했다. 그의 본업은 놀랍게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는 2019년 선배 의사의 권유로 복싱에 입문했다. 이후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33시간 당직을 서고도 체육관에 출근할 정도로 복싱에 푹 빠져들었다.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자 마시던 술은 점점 줄었고, 복싱에 매진할수록 체력과 정신력이 향상됐다. 그 덕에 힘들기로 유명한 수련의 기간을 무사히

넘긴 그는 한발 더 나아가 2020년 프로 복서로 데뷔해 2023년 7월, 8회 TKO승을 거두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싱 잘하는 여의사’라는 타이틀을 실력으로 당당히 거머쥐었다.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는 복서 서려경의 주먹은 여전히 뜨겁다. 2022년에만 장편소설 3권을 출간하며 ‘다작의 대가’로 떠오른 설재인 작가도 복싱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설재인 작가는 2014년, 외국어고등학교 수석 교사로 채용돼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아이들과 함께 출구 없는 수험생 생활을 거치며 점점 지쳐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땡’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고 한다. 소리의 진원지는 복싱 체육관. 그곳에서 충동적으로 회원 등록을 한 뒤 땀 흘리면서 그는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재설정했으며 소설가라



김제덕 양궁 선수(왼)와 이상혁 육상 선수(오)는 특유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형성했다

는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용기 있게 사표를 냈다. 그리고 2019년, 출판사와 단편 소설집 계약에 성공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에는 복싱을 배우며 차곡차곡 모은 단상을 책으로 엮어 <어퍼컷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를 출간했다. 복싱에서 익힌 끈기와 지구력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원고지 10매 이상의 글



설재인 작가는 <어퍼컷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를 통해 복싱과 사랑에 빠진 이 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었다고 말한다

을 쓰고 있다는 설재인 작가는 오늘도 복싱과 동행한다. **건강한 운동 문화로 더욱 흥겨워진 스포츠** 스포츠에 대한 MZ세대의 긍정적 자세는 거꾸로 스포츠의 풍경을 더욱 풍요롭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지난 9월 18일,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에서 2m 35cm를 넘어 한국 육상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석권한 이상혁 선수는 관중의 박수와 호응을 누구보다 잘 유도하고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덕분에 그의 이름 앞에는 ‘스마일 점퍼’라는 수식어가 붙기까지 했다. 관객들은 결과가 어떻든 웃음을 잃지 않고 높이뛰기 그 자체를 즐기는 이상혁 선수의 모습에 환호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즐기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 20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양궁 스

타로 떠오른 김제덕 선수도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경기 전·중·후로 설 새 없이 울려 퍼진 그의 “파이팅!” 소리는 양궁 국가대표팀과 국민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으며 덕분에 많은 사람은 올림픽을 무한 경쟁의 무대가 아닌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치는 축제의 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스포츠를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MZ세대 특유의 ‘즐거이는 마음가짐’이 빛어낸 바람직한 변화다. 스포츠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의 자세로 스포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MZ세대의 운동 문화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글을 쓴 강진우는 객관적인 정보와 색다른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사와 문화 칼럼을 쓴다.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현안과 분야에 몰입한다. 소설 <선물>, 자기계발서 <칼럼니스트로 먹고살기>를 집필했다.

한강에서 만나는 특별한 동물

거대도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그곳에도 치열한 생존을 위한 야생동물의 삶이 펼쳐진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놀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한강공원 한편에는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다. 서울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만나본다.

강서한강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
생태공원





밤섬은 2012년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으며 해마다 많은 철새가 이곳을 찾는다

생명의강 한강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 항상성을 지켜 생명이 작동하게 한다. 우리 몸도 절반 이상 물로 이뤄져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형성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큰물, 즉 한강 변에 자리 잡았다. 한강이 없는 서울은 상상하기 힘들다. 한강이 실어다 준 유기물로 쌓인 기름진 평야가 펼쳐졌고, 강을 따라 산과 바다의 물산이 모였기에 지형학적으로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됐다.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 모두의 사랑을 받은 한강이지 않은가.

강원도 태백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한강은 약 400km를 굽이굽이 흘러 서울에 닿는다. 서울 시계에 진입한 한강을 맞이하는 것은 거대한 도시의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다. 콘크리트 호안과 빌딩 숲, 도시화 고속도로가 강을 에워싼다. 소설가 김훈은 한강을 두고 “우리에 갇힌 맹수 같다”라고 표현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 자연성을 잃어버린 한강이지만 습지와 하반림이 남은 녹색 공간을 한강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서습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 샛강생태공원, 밤섬,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이 그러한 곳이다. 이 소중한 자투리땅에서 야생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상류로부터 흘러온 영양분을 머금고 있는 한강 습지는 여러 생명을 품는다. 물억새, 버드나무, 갯버들, 갈대, 달뿌리풀 등 습지식물이 녹색 띠를 이룬다. 쇠기러기, 고방오리, 청둥오리, 비오리 등 철새들의 안식처이며 잉어, 송어, 누치, 참게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이렇듯 한강 변 습지는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 사이의 전이대(Ecotone)로서 특유의 식생군락과 동물군이 먹고 먹히고, 경쟁하고 공존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 생태계 구성원 중엔 분류학적으로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포유동물도 있다. 포유류(哺乳類). 뜻을 풀

어내면 젓을 먹고 자라나는 생물무리를 말한다. 한강이 서울시민의 젓줄이듯 야생 포유동물도 한강에 기대어 살아간다. 한강이라는 젓줄에 기대 살아가는 야생 포유동물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남은 고양잇과 동물 삶

살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삶은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양잇과 야생 동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2021년 9월 암사습지생태공원에서 포착된 기가 막힌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귀 뒷면의 흰 반점, 복슬복슬한 꼬리, 이마에 난 검은 줄

“
낮에 시민들이
산책하고 쉬어가는
생태공원이
밤엔 삶의 차지가 된다
”

무늬. 때깔 좋은 삶이었다. 아직 다 자라진 않은 청소년기 삶이지만 포식자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었다. 암사습지 이외에도 서울 한강 변에서는 강서습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에서 삶 서식이 확인됐다. 삶은 야행성동물로 낮에 휴식을 취하고 밤에 부지런히 활동한다. 낮에 시민들이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는 생태공원이 밤엔 삶의 차지가 된다. 야심한 밤중에 삶은 생태공원 탐방로를 활보하고 다닌다. 공원이라는 같은 공간을 두고 활동 시간 분화를 통한 시민과 야생동물의 공존이 이뤄진다.

삶의 주된 먹이원은 설치류다. 한강 변 습지는 산림 지역보다 오히려 설치류의 서식밀도가 높다. 한강 변 습지의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삶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설치류뿐 아니라 한강 수변 지역 삶의 식단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와 달리 삶은 물을 마다하지 않고, 습지에서 잉어나 개구리를 낚는다. 갈대밭에서 은밀하게 잠복하다 한순간에 습격해 꿩과 철새를 공략하기도 한다. 상위 포식자인 삶의 서식은 한강 변 습지 생태계의 건강성과 먹이사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즉, 삶은 도시 생태계의 지표종(Indicator Species)이라 할 수 있다. 인구 천만 대도시권에 삶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은 밤섬에서 서식하고 있다



청둥오리는 한강뿐 아니라 중랑천, 불광천 등 서울의 하천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국가대표 야생동물 고라니

으윽~으윽~ 야심한 밤 습지에서 들려오는 괴성은 한강 변을 산책하는 시민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한 멧하의 절규 같기도 한 이 소리의 주인공은 고라니다. 온순한 생김새와 달리 울음소리는 제법 우렁차다. 뽐뽐하게 우거진 습지나 갈대밭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발달한 발성법이다.

고라니는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해 분포 범위가 넓지 않다. 중국 개체군 크기는 1만여 마리에 불과해 보호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가 약 70만 마리에 이르는 흔하디흔한 동물이다. 어쩌면 한반도를 대표하는 동물이라 할 수 있다. 사슴과 동물이지만 정작 사슴의 상징인 뿔이 없다. 대신 수컷 고라니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다.

고라니는 대표적인 로드킬 희생양이기도 하다. 해마다 전국 도로에서 생을 마감하는 고라니는 6만여 마리에 달한다. 일 년 중에서도 고라니 로드킬은 유독 5월과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40%). 작년에 태어



한강 변 습지에는 우리나라 최상위 포식자로 꼽히는 삶이 있다



난 고라니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찾아 헤매는 때여서 도로 횡단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강 변 올림픽대로에서도 이따금 고라니 로드킬이 발생한다. 초여름 운전 시에 특히나 철저한 전방 주시와 안전속도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

고라니의 영어 이름 워터 디어(Water Deer)에서 알 수 있듯 고라니가 선호하는 서식지는 습지, 농경지, 하천변 등 저지대 일대다. 탁월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어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바다에선 섬과 섬 사이를 오

가기도 한다. 서울 한강 변에는 갈대밭과 버드나무 하반림이 발달한 난지, 강서습지, 암사, 고덕생태공원에서 살아간다. 암컷 고라니는 겨울철 짝짓기 후 6개월간 뱃속에 품어온 새끼를 5월부터 낳기 시작한다. 어미는 단독으로 새끼를 낳고 기른다. 부단히 먹어야 젖이 나오므로 먹이 활동 시에는 새끼를 숨겨 놓는다. 초여름 한강습지 갈대밭에는 홀로 숨어 있는 새끼 고라니가 여기저기 박혀 있

“ 초여름 한강습지 갈대밭에는 홀로 숨어 있는 새끼 고라니가 여기저기 박혀 있다 ”



지난 2016년, 수달이 19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고라니는 주로 습지나 한강 근처 갈대밭에서 서식한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밤섬에서는 철마다 다양한 철새가 쉬어간다

다. 흑사라도 홀로 남겨진 고라니 새끼를 발견한다면 그저 못 본 체 지나치면 된다. 조만간 어미가 젖 물리러 올 것이기에.

수달이 돌아왔다

2016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광진교 아래서 수달 한 마리가 발견된 것이다. 1997년 팔당대교 부근에서 마지막 수달 사체가 발견된 이후 19년 만의 귀환이었다. 기쁜 소식은 연이어 들려왔다. 2017년 탄천에서 어미와 새끼 3마리가 동시에 촬영됐다. 서울 한강에 수달 번식 개체군이 형성됐음을 알려주는 첫 사례였다. 2019년에는 서래섬에서 수달이 목격됐으며 이후 잇달아 셋강, 송내천, 청계천, 중랑천 등 한강 본류와 지류의 다양한 곳에서 수달이 발견되고 있다. 올해엔 좀더 하류 쪽으로 분포 범위가 넓어져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도 서식이 확인됐다.

수달은 식육목 족제빗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이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숲과 들이 아니라 강과 저수지 등 물을 끼고 살아간다. 몸길이의 3분의 2에 맞먹는 긴

꼬리는 물속에서 방향타 역할을 한다. 머리는 납작하고, 몸은 유선형으로 물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구조다. 다섯 개의 발가락 사이엔 물갈퀴가 있어 헤엄치기 좋다. 귀는 작고 콧구멍은 수중에서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다. 수달 털은 보온과 방수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두 개의 층위가 있어 겉 털은 방수를 위해 두껍고, 안쪽 털은 보온을 위해 촘촘하다. 입 주변에 난 수염은 물 흐름과 물고기 이동을 추적하는 레이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수달은 수중 생활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달은 늦은 겨울~이른 봄에 짝짓기를 하며 임신 기간은 63~70일이고, 4~5월에 출산한다. 새끼는 평균 2마리 정도 낳는다. 어미는 새끼를 이듬해까지 데리고 다니며 물고기 잡기 맹훈련을 시킨다. 하천에서 주로 생활하고, 수영을 잘하는 만큼 수달의 먹이는 물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블루길, 배스와 같은 생태계 교란종을 잡아먹기도 한다. 그 밖에도 양서류와 갑각류, 드물게는 수변에 사는 새를 사냥하기도 한다. 이처럼 수달은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최정점에 자리 잡고 있으



며 먹이사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핵심종(Keystone Species)의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수달은 한강을 비롯한 전국 하천에 넓게 분포했으나 밀렵과 하천 정비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어 멸종위기 1급 생물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서울의 수달 귀환은 한강 생태계 회복을 알리는 청신호다.

하지만 한강에 수달이 돌아왔다고 해서 결코 긴장의 끈을 놓긴 이르다. 수달은 하천을 따라 생활하므로 생활 기반이 좁아 하천 생태계 교란에 취약하다. 한정된 서식 공간을 두고 종 내 경쟁도 치열하므로 서식밀도도 높지 않다. 거기다 수달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수달이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은신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달의 은신처는 물가 하반림이나 바위틈의 은폐된 공간을 주로 활용한다. 콘크리트 제방이 다수인 서울시 한강 구간은 수달 보금자리가 부족하다. 한편 수달은 하천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만큼 생물농축에 취약하다. 화학물질 축적과 중금속 중독으로 생식력이 떨어지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시민들이 발견한 한강 변 수달 똥에서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본에선 수달이 1980년대 들어 자취를 감췄으며 결국 일본 환경성은 2012년에 수달 멸종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학자들은 한국 수달 존재 자체를 부러워한다. “있을 때 잘하자”라는 교훈을 되새겨 봄 직하다.

한강의 제 모습 찾기

정작 우리는 잘 모르고 살지만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찬탄하는 것이 서울 산수의 아름다움이다. 멋들어진 화강암체 산과 유장한 흐름의 큰 강을 끼고 있는 인구 천만 대도시는 흔치 않다. 좀 더



강서습지생태원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야생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야생조류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서습지생태공원은 한강 변 생물들의 서식처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방화대교와 행주대교 사이 한강 둔치에 있다

욕심을 내 한강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면 어떨까 싶다. 한강의 원형 경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진경산수화다. 진경산수화는 말 그대로 실재하는 경관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으로 개발 시대 이전 서울 모습을 오롯이 담고 있다. 겸재 정선은 양수리에서 행주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풍경을 27점의 화폭에 남겼다. 그림에 표현된 한강의 모습은 하폭이 현재에 비해 좁으며, 대신 넓은 모래톱이 펼



람사르습지인 밤섬을 전망할 수 있는 밤섬생태체험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밤섬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야생동물과의 공존 모색과 한강 재자연화를 통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꿈꿔본다 ”

쳐져 있다. 본래 한강은 넓은 범람원을 형성하며 구불구불 흐른 자유곡류 하천이었다. 멋들어진 공격사면 단애와 활주면 넓은 모래 언덕, 하중도가 곁들여진 모래 강이었다.

한강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종과 횡으로 한강을 가로막는 보와 콘크리트 호안을 거두는 것이다. 수위를 원래대로 낮추고 퇴적 공간을 살리면 강은 스스로 부단히 모래를 실어와 자신의 본래 모양과 위치를 찾아갈 것이다. 강모래고운 백사장이 다시 자리를 잡고 수변림이 되살아날 것이다. 강수욕 인파가 찾았던 뚝섬 일대 비단 모래톱은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민물도요와 꼬마물떼새가, 황복과 웅어가, 재첩과 말조개가 돌아올 것이다. 모래톱에는 족제비, 고라니, 삿, 너구리, 수달이 저마다 발자국을 찍고 다닐게다. 물론 한강 생태계복원 실행에 있어 많은 이해관계와 충돌할지도 모른다. 유람선 운행과 수상스포츠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수중보



철거로 예상되는 유량과 취수량 변화에는 세심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강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논의와 노력은 분명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

최근 고무적인 소식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시민들의 노력이다. 달수클럽, 수달언니들, 달달이 등 자발적인 시민모임이 한강과 지류하천의 수달과 야생동물 서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식지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에는 시민, 환경단체들이 모여 수달이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수달네트워크’가 출범하기도 했다.

야생동물과의 공존 모색과 한강 재자연화를 통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꿈꿔본다. 🌿

글을 쓴 우동걸은 국립생태원에 재직 중이며 야생동물 생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다. 고즈넉한 낙동정맥 기슭에서 산다. 십수년 전 서울 한강 습지에서 밤을 지새우며 삿과 너구리를 무선 추적했던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 추적한 녀석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한강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



도심에 풀어놓은 자연의 숨결

'서울'이라고 하면 대개 높은 빌딩과 화려한 간판, 도로 위에 꽉 찬 자동차와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어쩐지 숲과 동식물은 서울과 거리가 먼 단어들이긴 같은데, 한강에 있는 다섯 개의 생태공원은 서울과 자연을 한 식구로 만든다. 도심에서 자연의 정취를 한껏 느껴보자.



*사진 및 정보제공: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여과과(02-3780-0849)

난지생태습지원

습지가 우기 외에는 담수가 되지 않아 습지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마른 습지부에 한강 물을 유입해 조성한 인공 습지원이다. 2013년에 야생동물보호구역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맹꽂이, 두꺼비, 오색딱따구리 등 곤충 594종과 양서 파충류 12종, 포유류 15종, 조류 55종, 식물 368종, 어류 24종 등이 서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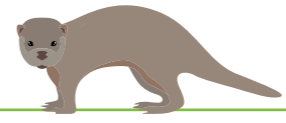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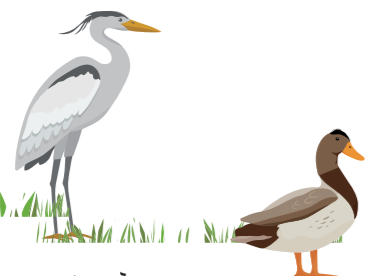
난지생태습지원 생태학습프로그램

1-1. 난지수변학습센터

- 연중 난지생태습지원 생태학교
- 봄 습지모내기, 봄꽃에코티어링
- 여름 습지갯벌체험, 유해어종어부
- 가을 가을 습지한마당, 옛날버타작
- 겨울 난지옛날설매, 짚풀공예, 한강철새탐조, 보리심기

1-2. 한강야생탐사센터

- 연중 생물탐사대
- 봄 꽃내음 풀내음
- 여름 한강탐사대
- 가을 쉼! 밤의 이야기를 들어봐
- 겨울 털·똥·뺨 발자국 탐험대



고덕수변생태공원

한강 최상류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이곳은 서울에서 유일한 생태복원지역이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모래톱, 버드나무숲, 두충나무숲과 산림지역 등의 도시생태계 자연성이 잘 보전됐으며 2007년, '고덕동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300여 종의 식물과 조류, 곤충, 양서파충류와 족제비, 너구리 등의 포유류 등 다양한 생물이 조화롭게 서식한다.



고덕수변생태공원 생태학습프로그램

- 연중 고덕셀프가이드 '가족 미션트레킹'
- 봄 생명꿈틀축제
- 여름 한강물고기 따라 고덕천 생태여행
- 가을 영리한 사냥꾼 거미
- 겨울 새들의 밥상



여의샨강생태공원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으로 예전에는 모래섬이었지만 지금은 도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원앙, 황조롱이, 물총새, 오색딱따구리, 왜가리를 만날 수 있다. 감조하천인 샨강은 바닷물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도 해서 강물과 바닷물에서 사는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다.



여의샨강생태공원 생태학습프로그램

- 연중 비대면 스탬프 투어
- 특별 수달은 내 친구
- 봄 스크룩~ 봄이 오는 소리
- 여름 여의샨은 습지공원이야
- 가을 여의샨강생태공원에 가을이 오면
- 겨울 공공, 여의샨강생태공원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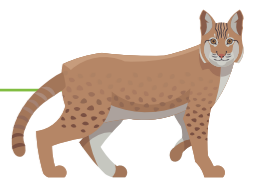
암사생태공원

습지 자생 군락과 자연 초지가 잘 보전돼 초·목본 179종, 곤충 163종, 양서파충류 9종, 포유류 1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낙지다리, 쥐방울덩굴 등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샨과 맹꽂이, 남생이가 있다. 천연기념물 323호로 지정된 새매와 황조롱이, 말뚝가리 등 다양한 생물이 사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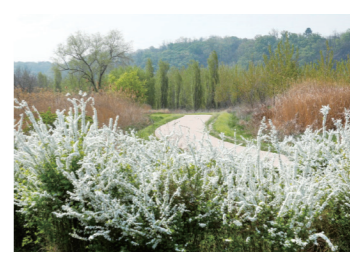
암사생태공원 생태학습프로그램

- 연중 암사플로깅 & 그린세이버
- 봄 봄마중 꽃마중
- 여름 습지여행과 신기한 땅속나라
- 가을 암사생태공원의 가을곤충과 거미
- 겨울 동식물의 겨울나기와 전래놀이



강서습지생태공원

밀물과 썰물이 교류하는 서해와 가까워 먹잇감이 풍부해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생물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새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갈대 군락과 버드나무숲이 있어 텃새뿐 아니라 수많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강서습지생태공원 생태학습프로그램

- 연중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새 버드나무 물길따라 생태 탐방 야생조류 시민모니터링
- 4-11월 한강 생태 밭줄놀이터



이번 호에서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서울시청 펜싱 사브르 윤지수 선수와 체조 마루 김한솔 선수의 특집 인터뷰를 다룹니다.



윤지수 선수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르 종목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펜싱 사브르 간판의 금빛 찌르기!

서울시청 펜싱 사브르 윤지수 선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흔한 만큼 불변의 진리이기도 한 이 말은 끈기와 강단을 무장해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 특히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르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한 윤지수 선수에게는 더욱이.

“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

금메달 결정전을 앞두고 두 명의 선수가 피스트에 올랐다. 대한민국의 윤지수 선수와 중국의 샤오야치 선수다. 경기 초반, 서로 1점씩 주고받으며 좁은 점수 차를 유지하다가 이내 그 간격이 벌어지고 만다. 상대 선수보다 10cm 정도 작은 윤지수 선수가 날카롭고도 재빠른, 예리한 움직임으로 앞서 나간다. 마침내 15대10. 윤지수 선수가 첫 개인전 금메달을 손에 쥐었다.

금메달을 축하드립니다. 금메달을 확정지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구체적으로 잘 기억나지 않아요. 샤오야치 선수와 인사하고 소리 질렀던 것 밖에는요.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첫 금메달이라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특히 14대10, 마지막 한 점 때는 동작을 정해두고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때가 가장 통쾌했어요.

결승 때 홈경기에서 뛰는 선수를 만났는데 부담은 없었나요? 오히려 샤오야치 선수의 부담감이 더 컸을 거예요. 펜싱 종목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 경기에 출전한 중국 선수들도요. 자신을 응원하러 온 관중들이 많으니 힘을 받고 더 잘해야겠다는 압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윤지수 선수는 덩덤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2012년 와카야마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부터 쌓아온 담력일까’ 싶었는데 정신력을 위한 훈련도 병행한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겨루는 만큼 펜싱은 일종의 심리전이기도 하다.

헬멧 너머로 상대 선수 표정이 다 보일 것 같아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도 있었나요? “상대 선수의

심리를 ‘어떻게’ 해봐야지”보다는 저한테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내가 언제 불안하고, 불안을 느낄 때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 게 도움이 될지 훈련도 받았고요. 평소에 책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글귀는 적어두었다가 몇 번씩 읽는데, 그것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했어요.

단체전에서는 동메달도 획득하셨어요. 아쉬워요. 10년을 같이 지냈던 선배 선수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마지막 주전으로 나가면서 만연니 역할을 했는데 잘해내야겠다는 책임감이 저를 압박해서 개인전만큼 좋은 경기력을 펼치지 못했어요. 늘 그랬지만 단체전 훈련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만연니로서 이끌어야 할 어린 선수들도 있고요.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하기에도 잠시 동메달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윤지수 선수. 금의환향한 윤지수 선수는 조급의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재활과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당장 서울시청 소속 선수로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다.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어요. 축하 인사 부탁드립니다.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00주년까지 오랫동안 서울 체육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해 우리 펜싱팀, 그리고 서울시체육회를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김한솔 선수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체조 마루 종목 개인전에서 14.900점으로 1위에 올라 금메달을 획득하며 2연패 달성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체조 마루 금메달 2연패 달성!

서울시청 기계체조 김한솔 선수

정상에 선 자들은 말한다. 꼭대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큼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힘써야 하는 일이라고.
그 자리를 견고히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그의 두 번째 금메달은
두 배 더 빛을 발한다. 금메달의 주인공, 기계체조 김한솔 선수다.

“ 종합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 졸이며 지켜봤죠.
하지만 역시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

어쩌면 금빛 무대가 될 널찍한 마루. 그곳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손과 발에 탄산마그네슘을 묻힌다. 긴장을 내뿜으며 깊게 호흡 한번. 김한솔 선수가 첫발을 내딛자 카운트가 시작됐다. 깔끔한 일곱 번의 착지. 14.9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축하드립니다. 여흥철·김수면 전 선수에 이어 ‘금메달 2연패’라는 타이틀을 얻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게 돼 영광입니다(웃음). 단체전에서 4위에 머물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는데 그 경험이 사기를 더 끌어올린 것 같아요. 단체전의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지만 마루 종목에서 성과를 내서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첫 순서임에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셨죠? 사실 ‘1번’이라는 순서에 징크스가 있어요. 첫 번째 순서로 출전할 때는 무난하게는 해도 잘한 적은 많이 없어요. 1번 순서가 되고, 김대은 감독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에 집중해서 뒤 순서인 선수들의 기를 확 눌러 버리자”고 하셨는데 그게 먹힌 것 같아요.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김한솔 선수는 마지막 일곱 번째 착지 후 금메달을 직감했다며 자랑스러운 비밀을 밝혔다. 어쩌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도 알아차렸을지 모르겠다. 심판들에게 가볍게 목례 후 박수치며 마루를 떠나는 그의 모습에서. 김대은 감독에게 안기는 그의 모습에서.

마지막 선수의 기록을 확인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선수의 결과가 나오

기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나가요. 체조 경기는 펜싱처럼 겨루는 경기가 아니라 기록경기잖아요. 종합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 졸이며 지켜봤죠. 하지만 역시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웃음).

이번 대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경기 시작 시간에 맞춰 훈련했어요. 단체전의 경우, 1조에 배정받아서 아침에 훈련을 많이 했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풀고, 시합 시간에 맞춰 경기 연습을 하는 등의 루틴을 짰어요. 체조 경기는 시합을 오전에 하느냐, 오후에 하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든요.

현지에서도 훈련과 경기를 반복하며 지낸 김한솔 선수는 개인전을 마치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잘해낸 경기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알게 모르게 조여 왔던 긴장감이 풀린 것이다. 하지만 이도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의 무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귀국 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서울시청 소속 선수로 출전해요. 17~19일에 체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해이해져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항저우에서 좋은 기운을 얻었으니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어요. 축하 인사 부탁드립니다.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보다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또 우리 서울시청 선수들을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ENNIS GASCON  SEOUL

필리핀에서 온 데니스의 서울 달리기

필리핀에서 온 데니스가 서울에 보금자리를 튼 지 어언 7년.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다. 서울에서 시작한 '새로운 취미'도 있다. 100m 달리기도 버거웠던 데니스이지만 이제 11km는 식은 죽 먹기다.



PHILIPPINES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온 데니스입니다. 2016년에 가 구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기도 하지만 서울은 아름다운 관광지 많고 교통편이 정말 편리합니다. 한국의 심장인 서울에 살면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Hi everyone, I'm Dennis from the Philippines. I came to Korea in 2016 and continue to work at a furniture factory in Seoul. Seoul has lots of beautiful tourist attractions and transportation is very convenient. I think this is what makes living in Seoul, the heart of Korea, feel comfortable and safe.”

DENNIS GASCON  SEOUL



♥ 보통 어느 곳을 달리시나요?

정해진 코스는 딱히 없어요. 집 근처 우이천을 주로 달리고요. 자연에서 달릴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시간이 꽤 여유로운 주말에는 종종 반포한강공원까지 가요. 반포에 갈 때는 대부분 2~3시간씩 자전거를 타요.

♥ 2023 서울 달리기에 참가하시죠?

11K 코스에 도전해요. 이번 마라톤은 올해 여섯 번째로 참가하는 대회예요. 2023 DMZ 마라톤, 2023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2023 썸머 나이트 런, 2023 KOREA 815 RUN, 2023 빵빵런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요. 모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계획은 없지만 규모가 큰 대회에는 참가하려 해요. 주변에 러너 친구들이 많아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마음이 훨씬 커요.

Where do you usually run?

There is no set course. Because I live near Uicheon, I usually run along Uicheon. I feel lucky to feel nature while running. I have some free time on the weekends, and then I often go to the Banpo Hangang River Park. When going to Banpo Hangang Park, I usually ride a bicycle, and it takes about 2-3 hours.

Are you participating in the 2023 Seoul race?

Yes. I'm going to try the 11K course. I have participated in several marathons such as 2023 DMZ Marathon, 2023 Incheon Songdo International Marathon, 2023 Summer Night Run, 2023 KOREA 815 RUN, and 2023 Bbangbbangrun. I'm not planning to join every marathon race, but I prefer participating in big events. I also have many friends around me who love marathons. They influence me in many ways. Above all, I am most motivated to challenge myself

♥ 꾸준히 달리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장거리를 달릴려면 쉽게 지칠 수 있어요. 시작은 짧은 거리에서부터 훈련하는 것을 권해요. 또 재미를 붙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영상으로 달리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SNS에는 달리기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영상이 있어요.

♥ 데니스에게 마라톤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내와 의지요. 처음에는 100m만 뛰어도 몸이 지쳤어요. 요산 수치와 식습관, 적지 않은 나이 때문인 듯했어요. 하지만 짧은 거리부터 조금씩 훈련에 임하니 많이 나아졌어요. 빨리 달리지 않더라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나 자신과의 경쟁이죠. 세계 기록보다는 완주가 더 중요해요.

What's the secret to running steadily?

If you run long distances from the start, you will get tired easily. I recommend short distance practice at the first stage. I prefer recording with video. Lastly, there are various tips for you on SNS.

What does a marathon mean to you?

I'd say patience and mental strength. When I first started running, I was exhausted after just running 100 meters, I thought it was probably due to my uric acid levels, eating habits, and my age of 47. So I started training little by little from short distances and gradually got better. For me, a marathon is a competition against myself to prove that I can finish the course regardless of the record. The important thing is not the record, but that I can complete the race.



달리기 경력 7개월

유난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던 어느 주말 오후, 강북에 있는 우이천은 강아지부터 어린아이, 노인까지 가을바람 맞으러 나온 주민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유아차를 끌기도 했고, 다른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등 뒤에 'SEOUL RACE'가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 이가 눈에 띈다. 데니스는 올 한 해, 한국에서 여섯 번째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총 9번째 횡수를 올해 안에 채울 예정이다. 봄에도, 가을에도 마라톤 대회를 놓칠 수 없는 데니스가 달리기를 시작한 것은 올해 3월이다. 필리핀에서도, 2016년에 서울에 왔을 당시에 데니스의 일상에 '달리기'란 없었다. 좀처럼 달리지 않던 그가 달리기를 시작한 데는 달리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같이 뛰자"는 주변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건강의 적신호를 감지한 데니스는 친구들과 아내를 따라나섰다. 필리핀인으로 구성된 러닝 동아리 'RISK'에도 가입했고, 동아리 일정이 없을 때는 아내와 집 근처 우이천을 달린다. 처음에는 100m를 달리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언에 따라 단거리부터 시작해 어느덧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실력을 쌓았다. 달리기 경력 7개월 차,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과 인내가 100m를 11km로 만들었다.

서울이 곧 운동장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는 데니스는 집에서 가까운 우이천을 훈련 트랙으로 삼았다. 쌍문동 부근에서 시작해 북한산 우이역 인근의 우이천을 거쳐 석계역을 찍고 다시 시작점까지, 같은 길을 수없이 달렸다. 데니스는 같은 길을 지루해하지 않고 달리는 방법을 안다. 운동하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꾸준히 올리는 것이다. 매번 챙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러닝 길에는 대부분 액션캠이 동행한다.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가을바람 맞으며 달렸던 이날은 핸드폰으로 짧게 영상을 찍는 것으로 대신했다. 다음



데니스가 2023 서울 달리기를 하루 앞두고 우이천 산책길을 달리고 있다

날 있을 2023 서울 달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데니스가 우이천을 제외하고 달리는 곳이 한 곳 더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한강공원이다. 한강을 달릴 때와 우이천을 달릴 때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 색다름을 위해 주말에는 대부분 반포한강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 반포한강공원의 공기가 유독 다른 점에는 주말이면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려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데 있다. 종종 데니스는 북한산과 도봉산에 오른다. 북한산과 도봉산도 우이천처럼 역시 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산이기 때문이다. 달리기를 할 때는 우이천을, 자전거를 탈 때는 반포한강공원을, 등산을 할 때는 북한산과 도봉산을. 데니스에게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의 운동장이기도 하다. ☺

'School Of Sports, SOS!'는 현직 체육선생님들의 실제 학교 수업에 참여해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코너입니다.

따로 혹은 같이, 우리의 농구

경인고등학교 이윤희 교사

농구에 진심인 교사와 농구에 진심인 학생들이 만났다. 농구공을 다루는 팔부터 공격과 수비를 취하는 몸짓까지, 국가대표 선수 못지않다. 학교 체육관에는 농구공 튀기는 소리가 매일 울린다. 아침, 점심시간, 방과 후 언제나. 경인고등학교 이윤희 체육 교사와 경인고등학교 남·여 농구부다.



40여 명의 학생, 한 명의 지도교사

40여 명의 학생이 체육관을 꽉 채웠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인 이 무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20분이 되면 체육관에 모여 100분가량 농구공을 튀긴다. 경인고등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농구부 학생들이다. 실내 코트를 메울 정도의 많은 인원이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경인고등학교 이윤희 교사다. 이윤희 교사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렸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이크가 없으면 40여 명의 학생을 지도하기 벅찰 것만 같다. 일반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만이 아니라 여타 방과 후 활동반 역시 정원이 있기 마련인데 이윤희 교사가 지도하는 경인고등학교 농구부는 그렇지 않다. 가급적 많은 학생이 농구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다고 한다. 그 마음이 학생들에게도 닿은 듯했다. 체육관을 찾은 학생들의 머릿수를 헤아려 보니 알겠다. 3학년 학생은 대학 입시 준비로 자주 출석하지 못하는데 이날은 특히 3학년 학생도 꽤 보였다. 취재일을 기준으로 바로 일주일 전인 금요일(9월 8일)에 치른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농구 대회 여운이 진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자부는 이 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했

는데 1점 차이로 준우승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때의 아쉬움을 달래고픈 3학년 학생들. 그 모습에서 이들이 농구를 얼마나 진심으로 즐기는지 얼핏 보였다. 현재 40여 명의 인원은 작년에 비해 꽤 감소한 편이다. 3학년 학생들뿐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농구부 활동을 관둔 학생도 여럿이다.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인원이 활동하는 경인고등학교 농구부다. 소수 정원을 이끌긴 했어도 '이렇게나' 많은 인원을 지도하는 건 이윤희 교사에게 낯선 일이었다. 그만큼 어려움도 따랐지만, 농구로 행복한 학생들을 보니 더 공부를 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 그 시작은 일본의 농구 지도 자료였다. 이윤희 교사는 '대규모 지도 방식'에 대한 자료 조사와 공부 중, 일본의 농구 수업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의 개인 SNS에는 일본에서 열린 학교 농구 대회 영상이 빼곡히 올려져 있다. 지난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농구 대회 결과가 아쉽기는 했지만 선수 출신이 속해 있던 상대 팀에 1점 차로 진 것은 이윤희 교사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지도교사의 열정과 학생들의 열정이 정확히 비례하는 경인고등학교 농구부다.

“ 40여 명의 학생이 체육관을 꽉 채웠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20분이 되면 체육관에 모여 100분가량 농구공을 튀긴다 ”



농구부에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표정은 언제나 밝다



이윤희 교사가 휘슬을 불자 모두의 시선이 농구공으로 모아졌다



남자부 선수가 골대를 향해 드리블을 하고 있다

“

이윤희 교사가 농구부를 지도하면서

중요시하는 것은 주장의 역할이다.

농구부에는 여자부 주장과 남자부 주장,

두 명의 주장이 있다

”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구 수업

이윤희 교사의 농구부 지도는 한 명의 교사가 2개 이상의 학년을 운영하는 복식학급을 떠올리게 한다. 패스(Pass) 훈련, 팀워크 훈련 등 훈련받는 내용이 같은 것은 복식학급과 조금 다르지만 전체 학생이 한 개의 그룹이 아닌 남자부와 여자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훈련이 이뤄지는 것은 같다. 이 점에는 신체적인 이유도 작용했지만 교육감배대회와 같은 교외 대회에는 혼성부가 아닌 남자부와 여자부로 따로 출전하기 때문에 이처럼 운영하는 것이 훈련에 효율적이기도 하다. 학생 인원도 많은 데다가 남자부와 여자부를 동시에 지도하려니 어느 때보다 바쁜 이윤희 교사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준비운동이 시작됐다. 짝을 이룬 두 명은 간격을 두고 농구공을 주고받는다. 한 학급의 수보다 많은 인원이 빼곡하게 체육관을 채우고 동시에 패스하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없지만 이윤희 교사와 농구부 학생들에게는 매주, 매번 있는 일이다. 2인 1조 패스 훈련 외 다른 훈련들에서도 익숙하다는 듯 이윤희 교사가 지도하는 대로 학생들은 대형을 갖추고 훈련을 시작한다.

이들의 훈련은 약 100분의 시간 동안 패스로 시작해 슛, 미니시합 순서로 이어진다. 패스와 슛 훈련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짧은 호흡으로 몇 가지 이상의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시도 여유로울 틈이 없다. 학생들의 발걸음은 농구 코트를 바쁘게 가로질러 다니며 두 눈은 농구공이 움직이는 기로를 쫓느라 바쁘다.

이윤희 교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남자부와 여자부를 지도한다. 첫 번째, 이들이 따로 훈련하는 방식이다.

우선, 체육관을 반으로 나눠 남자부 활동 영역과 여자부 활동 영역으로 구분 짓는다. 원 대형을 만들어 옆 사람 혹은 대각선



남자부·여자부가 짝수·홀수팀으로 팀을 결성해 더 많은 슛을 넣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로 훈련이 마무리됐다

의 사람에게 공을 패스하는 훈련이나 술래를 지정하고 큰 원 안에 또 다른 작은 원을 만든 후 패스를 하는 사이에서 술래는 농구공을 피해 다닌다. 작은 원을 만든 학생들은 패스받은 농구공으로 술래를 태그(Tag)해야 한다. 두 명의 학생이 드리블하며 컬러콘을 통과하는 훈련도 있다. 이 훈련들은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눠 이뤄짐으로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훈련이다. 이때는 성별이 아닌 유니폼의 숫자를 기준으로 팀을 나눈다. 짝수팀과 홀수팀이다. 각 팀은 양 끝에 설치된 골대를 하나씩 차지한다.

각 팀은 골대를 기준으로 남과 여, 두 줄로 선다. 가장 앞에 있는 두 명의 학생은 동시에 골을 향해 슛을 시도하고, 다음 순서의 학생에게 패스한 후 가장 마지막 줄로 돌아간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승리한다. 훈련의 마지막 순서인 미니시합은 짝수팀 남자부 대 홀수팀 남자부, 짝수팀 여자부 대 홀수팀 여자부로 따로 시합이 치러지지만 경기 결과는 짝수팀 대 홀수팀으로 판정 난다.

이 모든 훈련을 4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윤희 교사가 이끌었다. 활동 시간 동안 어떠한 진행에 있어서든 꼬이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척하면 척' 하며 지도에 잘 따랐다. 농구에 진심인 교사와 학생들이기에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버저비터까지 노릴 우리의 슛

이윤희 교사가 농구부를 지도하면서 중요시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주장의 역할이다. 경인고등학교 농구부에는 여자부 주장과 남자부 주장, 두 명의 주장이 있다. 주장은 경인고등학교 내 다른 동아리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동아리에도 있다. 어느 팀에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칫 이름만 주장뿐인 경우가 되기 십상이다.

이를 방지하고 주장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한 이윤희 교사는 '주장 단톡방'을 개설했다. 중요한 공지 사항이 있을 때면 이윤희 교사가 농구부 전원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통해 전달한다. 훈련의 시작과 끝을 맺는 준비운동 시간에도 이윤희 교사가 구령을 넣지 않고 두 명의 주장이 번갈아 구령을 붙인다. 농구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건강한 농구부를 위한 이윤희 교사의 마음이 투명하게 비친다.

이윤희 교사의 지도로 경인고등학교 농구 여자부는 교외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차지했다. 2년이 채 되지 않아 보인 성과다. 이 기세를 틈타 농구부 학생들은 정기 모임 외 시간인 아침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체육관에 모여 농구공을 튀긴다. 여자부의 준결승을 시작으로 남자부·여자부 모두 경인고등학교를 널리 알릴 때가 머지않았다. 🍀

變變(변변)스포츠는 '변화하는 스포츠, 진화하는 스포츠'라는 콘셉트로 스포츠 비하인드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학교체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동행

우리는 디지털 없이 하루도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학교체육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도 분명 있다. 학교체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상생 방안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논의돼야 할까.

디지털로 체육하기

여섯 살 아이가 편의점에서 막대사탕 2개를 사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냈다. 막대사탕의 가격은 개당 200원이다. 아이는 거스름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황은? 어린 종업원이 아이에게 거스름돈으로 500원만 주고 100원은 본인이 챙긴다. 셈에 약한 아이는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른 채 사탕을 입에 물고 기쁜 마음으로 편의점을 나간다. 돈의 규모가 커진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의 3R은 핵심 리터러시로 이해됐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이 세 가지를 못하면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는 어떨까? 우리는 디지털 없이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년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앱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뉴스는 올해도 단골 소재였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란 쉽게 표현하면 아날로그(예: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아닌 1과 0이라는 숫자로 생성된 디지털 정보(예: 새 울음소리 mp3 음원)를 찾아 이용하고, 조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¹⁾ 유튜브 시청, 이메일 작성, 키오스크 주문, 수능 공부를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우리 일상은 이제 디지털을 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면 체육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떻게 활용될까? 전통적인 체육수업에서는 디지털 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축구 수업을 예로 들어본다. 체육교사가 드리블 및 슈팅 시범을 보이던 학생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 고깔을 지그재그로 통과한 후 골대에 슛하는 형태의 활동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다양한 디지털 정보 및 기기가 수업에 활용된다. 세계에서 드리블을 가장 잘하는 축구선수의 영상 보기(패드 활용), 'On Form'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드리블 자세 분석하기(모바일 활용),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을 활용해 자신이 찬 축구공의 회전량, 속도, 방향 등을 알아보기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 구글클래스룸 등을 이용해 학생의 성장 등을 기록하는 형태의 디지털 리터러시 등도 활용된다. 교육적 효과 역시 좋다. 평소 운동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변화와 성장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방안은?

지금까지 체육수업에서 활용된 디지털 정보는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열렸다. 지난 9월 29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국민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결승에

서 세트 점수 2대0으로 대만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지어 전승 우승이었다. 많은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e스포츠의 인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학교체육에서 교육 내용으로 대부분의 스포츠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젠가 체육수업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배우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모니터를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형태의 체육수업. 무엇인가 어색한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다. 이미 리그 오브 레전드를 포함한 e스포츠뿐 아니라 바둑도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은 시점에서 스포츠와 스포츠가 아닌 문화 활동을 철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글에서 다룰 일은 아니다. 다만 체육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교체육이라는 영역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교육은 학교라는 공식 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교과 또는 과목이라는 단위로 교육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음악, 체육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과목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른 과목과 구분되는 체육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도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체력 증진, 신체 기능 향상, 스포츠 기술 습득 등이 다른 과목보다 강조돼야 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체육수업에서의 디지털 정보는 교과의 고유한 특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체육수업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 역시 향후에는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 OECD에서 '과목'과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역량(리터러시 포함)'의 종합 관계도를 그리고 있는 현재의 시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학교체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상생 방안 설정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의 일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설정하기도 했다. 통상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구성 요소로 이해된다.

글을 쓴 윤기준은 스포츠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스포츠교육학에서 생성된 이론과 실제 현상의 간극 메꾸기와 스포츠 학습을 지원하는 방법 찾기에 관심이 많다.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리그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시민리그(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하늘 높은 블로킹, 강력한 스파이크! 배구동호회 _____ 서울네오클럽

매주 일요일, 조용한 학교 체육관이 여성들의 외침으로 가득하다. 높은 네트 위로 강력한 스파이크와 철벽 블로킹을 멋지게 선보이는 이들은 바로 서울네오클럽이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하지만 배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만큼 진솔한 배구열정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영은 • 서울네오클럽 창단 멤버이자 회장인 김영은입니다. 회원 관리와 체육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어느 대회에 출전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회원들에게 대회에 함께 나갈 것을 안내합니다. 클럽을 이끌어가는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다솜 •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입단한 막내 이다솜입니다. 서울네오클럽 인스타그램 회원 관리를 맡고 있어요. 제 포지션은 라이트(Right)입니다. 체육교육을 전공했는데 배구는 동아리 활동으로 처음 접했어요. 이후에 동호회로 넘어오게 됐지요.

서울네오클럽의 창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김영은 • 처음에는 친한 회원들끼리 '네오플레그'라는 이름으로 <2015년 안산컵대회>에 나왔어요.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나간 <2015 전주한옥마을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여 배구대회>에서는 우승을 했지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2016년 1월에 서울네오클럽을 창단했습니다.

이다솜 • 서울네오클럽은 서울시, 양천구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어요.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회원들이 있지요.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에서도 오실 만큼 배구에 대한 열정이 강한 회원들입니다.

서울네오클럽은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나요?

김영은 • 처음에는 회원 1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15명으로 늘어났어요. 저희는 감독님을 모시고 선수들과 훈련을 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광영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연습과 경기를 하며 훈련하고 있어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배구 동호회와 친선 경기도 합니다.

이다솜 • SNS를 통해서 서울네오클럽을 홍보해요. 저희 클럽의 활동 내용을 동영상, 사진, 카드로 다양하게 만들고 해시태그도 여러 개 달아서 더 많은 분이 서울네오클럽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회장 김영은

“매주 일요일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광영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연습과 경기를 하며 훈련하고 있어요”



서울네오클럽 동호회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울네오클럽은 실전을 대비해 다른 여자 배구 동호회와 친선 경기를 벌인다



팀 분위기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서울네오클럽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김영은 • 저희 팀은 분위기가 아주 밝고 에너지도 정말 좋아요. 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회원들이 많은 것도 우리 팀의 자랑이고요. 구력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안정감 덕분에 팀 분위기가 밝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다솜 • 제가 올해 24살인데 언니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저를 엄청 예뻐해주세요. 실수해도 다 괜찮다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공을 마음껏 때리고 있습니다.

회원 중에 현 국제올림픽위원회 직원인 캐나다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김영은 • 양천구는 매년 가을 양천구청장기, 양천구협회장기 배구대회를 열어요. 각 동별로 경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캐나다인 선수를 만났죠. 제가 “함께 운동해보자, 전국대회도 같이 나가보자”라고 서울네오클럽을 추천했고 그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캐나다인 선수가 한국어를 잘해서 소통하는 데 문제없어요.

이다솜 • 캐나다인 언니가 실력이 좋은 공격수예요. 어느 포지션에서도 실력 발휘를 잘 해내세요. 저도 모르는 점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에서 모임을 갖고 계세요.

김영은 •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는 사설 체육시설에 기존 운동 동호인들이 있어서 서울네오클럽이 새로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학교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개방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19가 종식한 후로 개방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여러 학교 시설을 물색한 결과 광영고등학교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다솜 • 학교 시설이라는 점을 떠나서 광영고등학교 체육관이 시설 자체가 잘 갖춰 있어서 좋습니다. 광영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배구 동호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서울시민리그 출전 계기와 경기 준비 과정을 소개해주세요.

김영은 • 서울네오클럽이 2019년에 서울시민리그 배구리그 준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열심히 했던 기억도 있고, 서울시민으로서 다시 한번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다솜 • 저는 감독님과 언니들이 주문하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트 포지션이 익숙하기 때문에 일단 라이트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블로킹이나 공격 방법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11월 11일에 열리는 배구리그 결선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김영은 • 그동안 훈련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클럽하고 같이 운동하다가 우리만의 장소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협력이 잘되는 것 같아요. 좋아진 만큼 우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리그를 통해서 저희 서울네오클럽이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다솜 • 예선전에서 다양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언니들이나 감독님이 대처 방안을 잘 알려주고 계셔서 결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쌓아온 길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김영은 • 직장, 가정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배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어요. 또 9명이 함께하는 운동이라 팀워크가 아주 중요해요. 그만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다솜 • 배구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낍니다. 9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언니들이 있어요. 함께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것이 배구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에게 서울네오클럽은 어떤 존재인가요?

김영은 • 7년 전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과 서울네오클럽을 창단하면서 “나이 먹어서도 이 멤버대로 영원히 가자”라고 다짐했어요. 긴 세월 속에서 아주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서울네오클럽은 제 인생에 큰 활력소였습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제 인생에 빠뜨릴 수 없는 존재예요. 서울네오클럽이 개인 생활을 제외하고는 제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다솜 • 올해 3월에 서울네오클럽 회원 선수가 되고부터 일요일만 기다립니다. 언니들이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로 서울네오클럽 활동이 일상이 됐어요. 본가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매주 일요일에 쉬지 않고 나오려고 합니다. 🍀



동호인 이다솜

“ 언니들이나 감독님이 대처 방안을 잘 알려주셔서 결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네오클럽은 감독의 체계적인 지도로 훈련이 이뤄지기 때문에 초보자도 환영한다고 전한다

스포츠 ESG 협의체, 스포츠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urence Douglas Fink)가 2020년 1월 연례 서한에서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하겠다는 투자 방향을 발표한 후 전 세계에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스포츠 이해관계자도 '스포츠 ESG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 분야에서 ESG 경영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ESG 경영 제대로 알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개념은 2004년 국제기구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가 지속가능 금융을 위해 스위스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이니셔티브인 '후 케어스 윈(Who Cares Win)'이 발표한 보고서(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를 통해 처음 등장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06년 4월 유엔 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UNEP FI)과 UNGC의 협력을 통해 책임투자 원칙(PRI)을 수립해 ESG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세계 최대 규모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책임투자 원칙을 고려해 석탄, 담배, 핵무기 생산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기금 중 세계 세 번째 규모인 한국의 국민연금 역시 2022년까지 책임투자 비중을 5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 수립에 ESG를 포함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동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경영 성과를 창출해야 투자 받기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ESG 경영 확산 이전에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 경영이 보편화됐지만 기업 경영의 기본 요소인 재무 자원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포츠에 왜 ESG 경영?

ESG 경영은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확산됐지만 심각한 수준의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기업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와 공공 부문까지 ESG 경영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ESG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코로나19라는 닥친 바이러스가 등장하며 인간의 환경 파괴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지를 체험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EU는 기업지속가능공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나 기업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와 같은 법제화를 통해, 미국은 시장 주도의 자발적 ESG 경영으로 출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증권거래위원회, 노동부, 환경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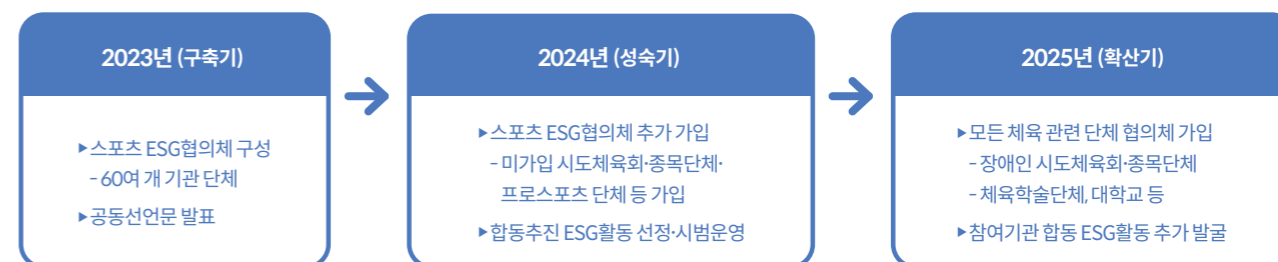
국과 같은 주요 기관에서 연방 수준의 ESG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제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ESG 경영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조직 경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스포츠는 국가 구성원이나 시민의 사회적 통합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넓게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가 대항 스포츠 이벤트에서, 좁게는 프로스포츠 리그의 구단 간 경기나 학교와 클럽 스포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경쟁과 승패라는 가치를 지녔으며 경쟁은 궁극적으로 '승리' 또는 '우승'으로 수렴되는 최종 목적을 위해 수많은 기관과 조직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나 팀, 개인의 승리를 위해 ESG를 포함한 많은 가치가 공식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소외돼 왔다. 과거에 학교 운동부 성과 달성을 위해 학생 운동선수 개인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던 시스템, 대규모 국제대회를 위한 경기장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등이 대표 사례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를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 이해관계자 개인이나 조직 경영에도 ESG 경영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길

2023년은 한국 스포츠에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고 있다. 스



<표1> 스포츠 ESG 협의체의 단계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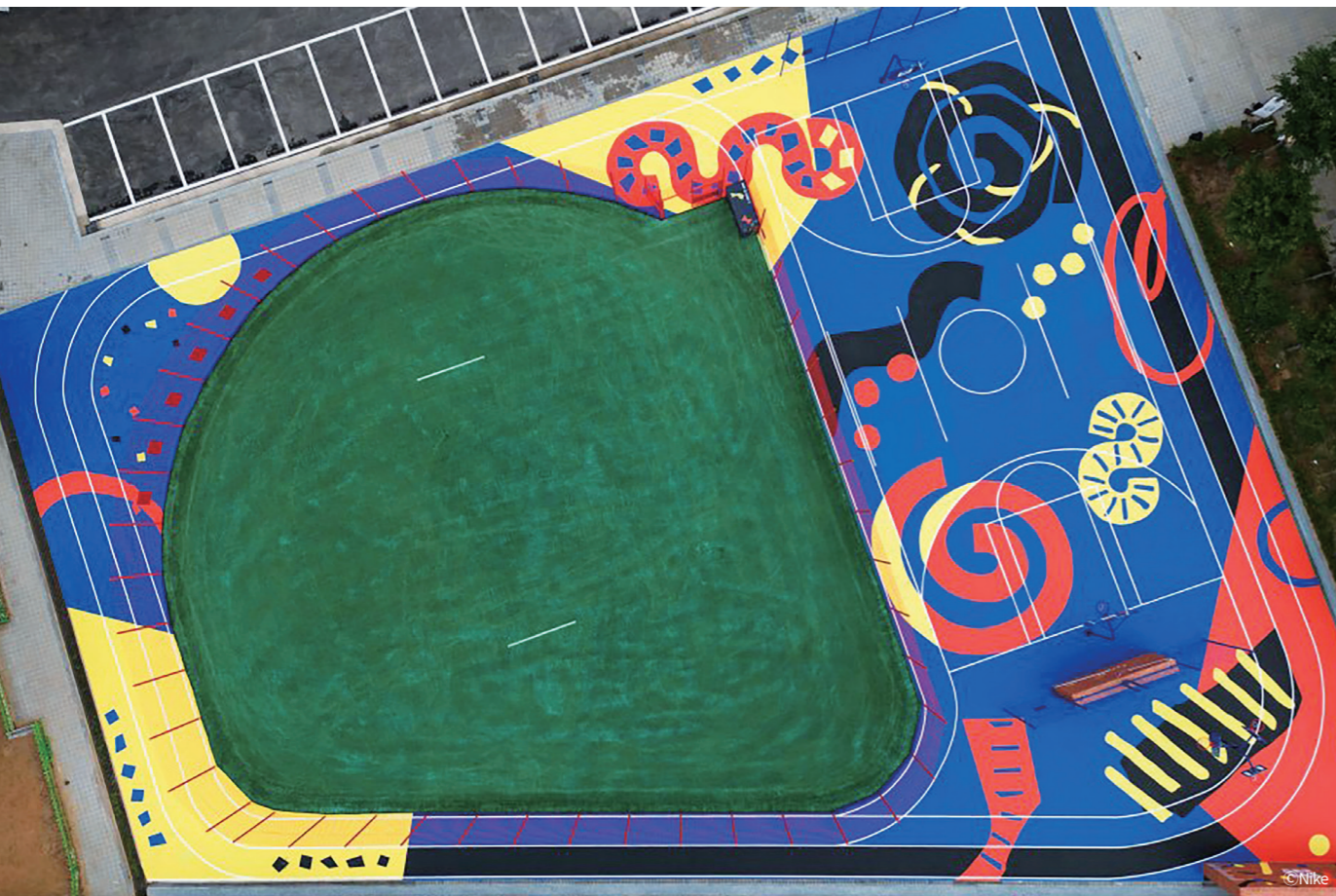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포츠 분야별로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18일에는 스포츠 분야 이해관계자가 뜻을 모아 '스포츠 ESG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 ESG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7개의 의제 설정을 통해 앞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ESG 협의체 설립 의의를 살피면 스포츠로 창출할 수 있는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스포츠 이해관계자가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이해관계자가 현재 수행 중인 ESG 경영 활동을 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해 스포츠 분야에 ESG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의체의 구성은 스포츠 관련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지역 단위 체육회, 대학교와 학회 등 스포츠 관련 교육기관, 스포츠 종목별 행정 조직 등 정부와 학계, 그리고 스포츠 현장의 실무 분야를 종합적으로 포괄한다. 스포츠 분야별로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18일에는 스포츠 분야 이해관계자가 뜻을 모아 '스포츠 ESG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 ESG 선언문'을 발표했다.

나이키코리아·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이가 스포츠의 즐거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열린 스포츠 공간 '모두의 운동장'을 조성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싣담달리기를 개최해 올림픽공원 일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환경정화에 동참했다

선언문은 7개의 의제 설정을 통해 앞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ESG 협의체 설립 의의를 살피면 스포츠로 창출할 수 있는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스포츠 이해관계자가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이해관계자가 현재 수행 중인 ESG 경영 활동을 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해 스포츠 분야에 ESG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의체의 구성은 스포츠 관련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지역 단위 체육회, 대학교와 학회 등 스포츠 관련 교육기관, 스포츠 종목별 행정 조직 등 정부와 학계, 그리고 스포츠 현장의 실무 분야를 종합적으로 포괄한다.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무엇을 어떻게?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은 경영 활동 과정에서 ESG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역시 이해관계자가 지금까지 ESG 이슈는 다른 가치들과 비교해 중요성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적 가치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ESG 법제화는 스포츠 관련 기업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포함돼 있는 한국 기업은 EU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수행하고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ESG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국내에서 유치하고자 할 때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속가능 정책이나 스포츠 종목별 주요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ESG 경영 성과 기준을 충족시켜

야 국제 대회 개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 ESG 협의체는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이해관계자를 군집화하고 각 군집에서 필요로 하는 ESG 경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포츠 현장에서 ESG 경영이 현실을 반영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원 간의 면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 사업 수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으로 ESG 경영 성과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면 스포츠 ESG 협의체에서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실시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스포츠대회 국내 개최를 위한 지원 과정에서 대회를 주최하는 시도 단위 체육회나 종목별 단체, 지자체의 ESG 이슈 대응 역량을 고려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스포츠 ESG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ESG 관련 정책 도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스포츠는 뛰어난 경기력과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스포츠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연환경과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스포츠의 본질인 경쟁과 승패를 넘어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스포츠 ESG 협의체의 역할이 기대된다. ☞

글을 쓴 **신성연**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과 데이터분석센터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산업 정책과 기업 경영, 소비자행동, 데이터 분석과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이 쌓은 대학 스포츠 문화

미국 대학 스포츠는 대규모 경기 시설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언제나 흥미롭다. 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재학생, 동문, 지역 기반 팬들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미국 사회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 스포츠가 지닌 매력을 역사와 사회적 영향, 문화 측면에서 살펴본다.

미국 대학 스포츠의 역사

미국의 대학 스포츠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대학 간 경쟁 상황이 도래한 이후, 동부 대학에서 먼저 스포츠 관련 조직이 설립되고, 스포츠 참여가 장려됐다. 1840년대에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이 최초의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대학 간 경기를 개최

했다. 1876년에는 동부 대학에서 야구, 미식축구, 육상과 같은 스포츠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전국 대학에 널리 알려졌다. 많은 대학이 대학 간 경기에 참여하면서 규칙을 감독하는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미대학체육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s Association, 이하 NCAA)가 1906년에 설립됐다. NCAA는 미국 내의 대학 스포츠를 감독 및 관리하며,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의 1100개 이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 운동선수들을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제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 미국의 대학 스포츠 산업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큰 스포츠 산업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현재 미국 대학 스포츠에서 인기 있는 대회 중 하나는 ‘March Madness’로 2022년에는 1000만 명 이상이 ‘March Madness’를 시청했으며 NCAA는 약 10억 달러를 수익으로 창출했다.



미국에서 테일게이팅(Tailgating)은 경기 관람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로 여겨진다

사회적 영향: 텔레비전, 타이틀 나인(Title IX)과 여성 스포츠

① 텔레비전 : 1927년, 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상업화 시대는 지역 기반의 대회를 전국 대회로 전환하는 발판이 됐다. 방송사들이 대학 스포츠의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대학 스포츠는 광범위한 팬 기반을 갖게 됐다. 이 기간에 오렌지 볼과 로즈 볼 같은 주요 대학 토너먼트가 개최됐고, 전국 최고 팀들의 경기가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됐다. 광고와 방송, 스폰서 계약을 통해 대학들의 수익은 증가했다.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최첨단 시설 및 코치진을 갖추고, 선수 영입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② 타이틀 나인(Title IX)과 여성 스포츠 : 1972년 타이틀 나인이 제정돼 연방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이 금지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여성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촉진되면서 여성 선수들은 더 많은 권리를 부여받았고, 대학부터 프로 수준까지의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타이틀 나인으로 인해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는 현재 여자부 종목이 9개로 5개인 남자부보다 활성화됐다. 타이틀

나인에 근거해 남자부 예산만큼 여자부에서도 같은 예산을 사 용해야 한다.

기반이 되는 문화: 정체성과 커뮤니티, 경쟁의식

① 정체성과 커뮤니티 : 대학 졸업생, 즉 동문의 지속적인 후원은 대학 스포츠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동문은 학교를 향한 애정으로 후원을 받고 있는데 스포츠도 주요 대상이다. 2020년에 프린스턴대학의 졸업생 중 55%가 대학에 기부했으며 기부금들은 스포츠 시설의 개선과 선수 영입에 활용되고 있다.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에 박사로 오면서 테일게이팅 파티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서도 스포츠 경기를 꽤 관람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동료들과 캠핑할 수 있는 텐트, 음식 등을 준비해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지정된 학교 주차장에서 테일게이팅 파티를 경험했다. 팬들은 경기 시작 전에 사교 활동을 하며 친구, 가족 또는 동문과 시간을 보내는 문화를 테일게이팅 파티라고 부른다. 이러한 파티는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 주변의 주차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열린다.

② 경쟁의식 : 오랜 기간 동안 스포츠는 미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 대학팀과의 승리에 열광하고, 대학팀을 추종하는 팬 활동은 미국의 주요한 여가 활동이다. 부족주의(Tribalism)라 할 수 있는 집단성은 대학 스포츠의 기반이 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응원가, 마스코트, 대표 색상, 마칭 밴드 등을 통해 집단만이 가진 속성을 표현하고 각인시켜 하나의 유대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미국 가족은 출신 대학이나 지역 대학을 함께 응원한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가족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

글을 쓴 정미령은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에서 스포츠 경영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에서 강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 경영·마케팅·개발을 강의하며 골프 관련 연구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테니스와 클레이사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체육을 향한 비전을 펼치다

관악구체육회 김학규 회장

스포츠가 일상인 어떤 이가 건설 회사를 설립했다.
 자수성가로 일군 회사이지만 스포츠를 향한
 마음을 외면하지 못하고 골프, 스키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을 이어오며 체육계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지금, 관악구체육회를 포함해서
 각종 체육단체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학규 관악구체육회장이다.



1999년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로 시작한 관악구체육회는 더 많은 구민이 체육의 즐거움을 알고, 몰입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매해 연초가 되면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노인·유소년 등 대상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관악구 내 경로당,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관악구는 청룡산, 관악산 등 사방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이에 한강 변과 하천 변에 접근하기 쉬운 타자치구와 달리 배드민턴 시설이 유독 많다. 등산을 즐기는 체육인이라면 산 중턱에 마련된 배드민턴 시설을 많이 봤을 것이다. 관악구체육회는 관악구의 이러한 점을 살려 구민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관악구체육회 김학규 회장이 내놓은 “체육을 강하게, 마을을 즐겁게” 그리고 “체육은 복지다”처럼, 관악구체육회는 구민이 편하고, 즐겁게 체육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관악구체육회는 구민들의 건강 향상만큼 체육회 직원들 간의 소통도 중요시한다



Q. 현재 민선 2기 전에 민선 1기 때도 관악구체육회 수장으로 계셨어요. 민선 1기를 회상한다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였던 1기를 돌아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19가 큰 복병이었습니다. 이점은 우리 관악구체육회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 체육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포츠란 모름지기 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체육인들의 만남을 막았고, 만날 수 없으니 각종 행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첫 민선 체제였던 만큼 기대도 컸는데, 코로나 19로 다양한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Q. 민선 2기 회장으로 취임하신지는 약 10개월이 됐어요. 회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체육계의 방향이 분명 있을 텐데요.

주무관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예산 지원 확대, 체육회의 자율권과 독립성 강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독립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과 대회, 행사들이 모두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구민의 건강 향상과 스포츠로 행복한 삶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죠. 주무관청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체육회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체육회가 있죠. 그중 관악구체육회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벽을 낮춰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체육시설’입

니다. 현재 체육시설은 많지만 구민들이 이용료에 대한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꽤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관악구체육회에서는 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개방하거나 대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으며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관리자적 측면에서 외부인 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데, 구민들을 위해 기꺼이 공간을 내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Q.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장과 서울시자치구체육회회장단협의회회장이시기도 하세요. 회장님께서 품고 계신 체육계 비전이 있으신가요?

“체육을 강하게, 마을을 즐겁게” 민선 1기 당시 제가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단연 현재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복지다” 민선 2기 슬로건입니다. 두 개의 슬로건으로 답변을 대신해도 될까요?(웃음) 관악구체육회장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주무관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체육회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자치구체육회회장단협의회회장으로서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해 25개 자치구회장님들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체육 발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님 과도 협력해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회장으로서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



가을 한강에서 헤엄치고, 달리고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2023 한강 르네상스 페스티벌 아쿠아슬론대회'가 잠실 한강공원과 수중보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잠실 수중보에서 오픈워터 수영과 한강공원 산책로를 따라 러닝까지 즐길 수 있었던 이번 대회는 세이프티 코스(A조 편수영 900m, B조 1.8km), 미라클 코스(수영 1.5km, 달리기 10km), 챌린지 코스(수영 750m, 달리기 5km)로 진행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민들과 함께 챌린지 코스에 참가해 아름다운 가을 한강을 만끽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3 한강르네상스페스티벌 아쿠아슬론대회'에 출전해 한강에서 헤엄치고 5km를 달리는 '챌린지 코스'에 참여했다



▲ 57번 배번호를 단 참가자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서울시선수단의 차지, 종합 준우승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9일(목) 7일간의 열전의 막을 내렸습니다.

총 2,09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서울특별시 금메달 101개, 은메달 106개, 동메달 123개로 종합점수 5만3042점을 획득해 경기도에 이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수영의 허연경(방산고)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포함해 5관왕을 차지했으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서울시청 자전거팀 이혜진 선수가 3관왕, 스포츠클라이밍의 서채현 선수와 체조 김한솔 선수가 각각 2관왕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10월 13일(금)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 입장하는 서울특별시 선수단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종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문체관광위원들이 서울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범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우), 류준현 부장(좌)이 종합2위 시상대에 올라 깃발과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육상 여자 대학부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서울 박다운(서울대학교) 선수(가운데)가 정규혁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시상대 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영 여자 18세 이하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4.97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서울의 허연경(방산고) 선수가 기뻐하고 있다

▼하키 여자 일반부에서 동메달을 딴 서울(한국체육대학교)과 경북(경북체육회)의 준준결승 경기에서 한체대가 4대3으로 승리했다



◀배드민턴 여자 18세 이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서울의 곽승민(창덕여고) 선수가 셔틀콕에 집중하고 있다

▼리듬체조 여자18세 이하부 리본에서 은메달을 딴 최희재 선수의 연기 장면



▲농구 남자18세 이하부에서 금메달을 딴 서울 용산고와 전남 여수 화양고의 준준결승경기 장면



▲육상 남자 18세 이하부 3000m 장애물경기에서 서울의 김재현(배문고) 선수가 9분50초86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배구 여자 18세 이하부에서 우승한 서울 중앙여고와 광주체고의 예선 첫 경기에서 중앙여고 선수가 블로킹을 피해 페인팅 공격을 하고 있다



농구인들의 열정 담은 종합우승... 급수제 시행으로 저변확대 기대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이충민 회장

이번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47개 중 서울시는 10개 종목이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그 가운데 단체 종목 우승의 주역인 이충민 서울특별시농구협회장을 만났다.



Q.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어느 정도 우승을 예상하셨나요?

서울의 전력이 좋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게 사실이에요. 남자고등부 우승팀인 용산고등학교는 3연패를 달성했어요. 남자대학부 선발전인 고려대학교는 대학부 최강이었지만 4강에서 실상 프로팀인 상무에 패해 3위에 머물렀어요. 여자고등부 동메달을 획득한 송의여자고등학교는 그야말로 200%의 기량을 발휘했어요. 여자일반부 서대문구청팀은 올해 3월 출범한 팀으로 첫 출전이었는데, 여자일반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해요.

Q. 서울 농구의 전력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선수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서울의 여자 초등학교 농구부가 세 팀에서 두 팀으로 줄었어요.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선수 육성을 추진한다 해도 현재는 과도기적 시점이라 그들 간의 체력 차이는 현격하죠. 그렇다고 학교운동부를 새로 창단해 선수를 수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기존 학교 운동부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Q. 2021년, 서울시농구협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임기 동안 가장 중점에 두었던 사항이 있나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이 목표예요. 전국체육대회 우승으로 목표의 절반은 이뤘으니(웃음), 내년 전국소년체

육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어요. 또, 25개 구체육회마다 구청장기 대회, 구협회장기대회 등 수많은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입니다.

Q. 지방체육회가 민선이 되면서 체육계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농구협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선수양성,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보급 등 고전적인 체육회의 역할 외에도 종목 저변확대와 재정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농구협회는 전국 최초로 생활체육 농구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급수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급수제가 시행되면 정확한 자세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승급으로 즐거움이 배가 돼 종목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봐요. 12월 발표 예정이니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충민 회장은 도봉초등학교 때 농구를 시작해 삼선중, 대경상고, 국민대학교까지 선수생활을 한 농구인이다. 현재는 배재중학교에서 체육부장을 겸하고 있다.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전무이사를 거쳐 현재 제9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한시라도 농구 현장을 떠난 적 없을만큼 농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이충민 회장. 농구 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시도로 급수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구협회의 변화와 도전을 기대해 본다. ☺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서울시청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10월 10일(화) 낮 1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서울시청 소속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서울시청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은 11종목 12개팀 총 22명으로 10개의 메달(금2, 은6, 동2)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의 영예는 체조 마루운동 종목에서 2연패를 달성한 남자 체조의 간판 김한솔 선수, 첫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펜싱(사브르) 윤지수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청 최연소(19세) 선수이며 기상 악화로 결선이 취소되어 아쉽게 은메달을 수상한 서채연 선수, 목표했던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을 이루지 못했

으나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여자 태권도 이다빈 선수,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했으나 은메달을 획득한 핸드볼 송지영·조수연·정진희·윤예진 선수 또한 선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아시안게임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링 종목에 첫 출전한 서울시청팀의 김현우·전지예 선수 등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의 선전으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힘들고 지친 순간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감동받는 서울시민들의 응원을 생각해 달라”며 “서울시는 비인기 종목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2024 파리올림픽을 향한 도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금메달(2)	윤지수(펜싱 개인1), 김한솔(체조 개인1)
은메달(6)	이다빈(태권도 단체1, 개인1), 이혜진(자전거 단체1), 홍서인(펜싱 단체1), 송지영·조수연·정진희·윤예진(핸드볼 단체1), 서채연(클라이밍 개인1)
동메달(2)	민경호(자전거 단체1), 윤지수·홍하은(펜싱 단체1)

◀ 금메달의 주인공 윤지수 선수(위)와 김한솔 선수(아래)가 펜싱검과 선수복을 전달하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서울체고 선수단 격려금 전달

10월 6일(금), 서울시체육회 김성범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체육고등학교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부회장은 격려금을 전달하고 서울특별시 고등부 대표 선수단의 선전과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체고 선수단은 16개 종목 총 187명으로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체조 박선우·안연정 선수 외에 근대5종 신수민, 다이빙 한지우·오수연 선수가 금메달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울체고 선수단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41, 은29, 동107개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한편, 김성범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은 “서울시를 대표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서울체육고등학교 선수와 지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시설 확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성범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우)이 서울특별시 고등부 대표 선수단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대표 출전 한국체육대학 선수단에 격려금 전달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9월 19일(화),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만나 격려금을 전달하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는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단의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문원재 총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상호 협력해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10월 13일부터 전라남도 목포 일원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서울특별시 선수단은 총 2090명(임원 661명, 선수 1429명)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소속은 330명(임원 24명, 선수 306명)이 출전합니다. 작년 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서울 선수단은 금21, 은28, 동24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23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

8월 31일(목) 경기도 양평군 일원에서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황영찬 대외협력관을 비롯해 25개 서울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MBTI 리더십과 감사 지적사례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문화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자치구체육회는 서울시 체육의 근간이며, 서울체육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격려했습니다.



자치구체육회 뉴스

2023 영등포구체육회장배 치어리딩대회 개최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오성식)는 10월 15일(일) ‘영등포구체육회장배 치어리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지원한 자치구별 특성화 종목육성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K-pop 음악에 맞춰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2023 서울특별시 시민체육대축제’에서 생활체조 부문 1위를 차지한 엠지(MZ) 할매팀과 치어리딩협회 치어리터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46개 팀, 300여 명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대상은 Team pom의 바스타즈 팀이 차지했고, Team Primary L 2부문은 엔젤킹 알파팀, Youth L2 부문은 렛츠치어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은 “영등포구체육회장배 치어리딩 대회를 개최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3 서울국제초청장애인파크골프대회 개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에서 국제장애인파크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3 서울국제초청장애인파크골프대회’는 27년 역사의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장소 및 환경 문제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새로 추진됐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 6개국 6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스탠딩(PGST1·2·3)과 휠체어(PGW) 개인 남·여 및 단체(혼성 4인조)별로 선수부와 생활체육동호인부로 나눠 치러졌습니다. 한편, 장애인 이동 편의 등 대회 운영에 만족감을 표시한 해외 선수들은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02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하계캠프 개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자연과 함께! 힐링 투게더(Healing Together)’라는 주제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인제군에서 장애인 하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래프팅, 서바이벌 스포츠, 레이싱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가운데,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유도 전공자들이 서포터로 함께해 어울림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이장호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이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장애인들도 도전의 의지로 캠프에 적극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과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제9회 서울시각장애인어울림마라톤대회’가 성료됐습니다. 9월 16일 독섬 한강공원에서 암사대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하프와 10km 마라톤, 5km 걷기 등 3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시각장애인과 전문 마라톤 가이드러너 등 총 3300여 명이 함께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대회 안전을 위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대1로 손목에 끈을 묶고 함께 달렸으며, 코스 곳곳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자전거 응급 패트롤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영화배우 신현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 위촉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10월 11일, 영화배우 신현준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신현준은 2006년 <맨발의 기봉아>에서 8세 소년의 지능을 가진 40세 주인공을 연기하며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신현준은 앞으로 서울시장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회와 행사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날 위촉식에서 신현준은 “10년 전 파라아이스하키를 접하고 장애인체육의 열정에 감동했다. 더 많은 서울시민이 장애인체육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열정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서울시청 소속 국가대표 격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9월 19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을 방문해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출전을 앞둔 서울시청 소속 장애인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아시안 패러게임에 서울시청 선수단은 총 6개 종목에 10명이 출전합니다. 28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낸 무적의 여자 골볼팀(정지영 코치 등 5명), 장애인 탁구계의 라이징 스타 장영진 선수, 양궁 박홍조 선수와 역도 김형희 선수가 유력한 메달리스트로 꼽힙니다. 또한 차세대 유망주 수영의 장중윤 선수와 육상의 김범진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멋진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왼쪽부터) 탁구 장영진, 수영 장중윤, 양궁 박홍조, 권익태 팀장, 역도 김형희, 이장호 사무처장, 골볼 최영지, 김희진, 심선화, 서민지, 정지영 감독

2023 서울특별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료

10월 14일, 잠실실내체육관 일원에서 2023 서울특별시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선수단 5000명(선수단 3500명, 운영진 1500명)이 18개 종목(동호인종목 5, 화합종목 4, 체험종목 9)에 참가해 열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의 종합 우승은 '대회 6연패'에 빛나는 노원구가 차지했으며 2위는 중랑구, 3위는 동대문구가 차지했습니다. 황재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더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될 것을 약속한다”며 25개 자치구선수단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ZIGZAG QUIZ

지그-재그 낚말 퀴즈

11+12월호를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퀴즈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서울스포츠> 11+12월호에 담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퀴즈판에 11+12월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동물 삶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이후 서울 한강 변에서 삶의 서식이 확인됐는데요. 밤이면 삶의 탐방로가 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HINT #이토록 특별한 한강 #생태공원 #산책로

웹진 QR코드



- ▶ **참여방법** 1. 12월 8일까지 서울스포츠 웹진 이벤트 페이지에 정답을 제출한다.
- 2. 웹진 메인 화면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한다.
- 3. 당첨자일 경우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남긴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12월 중에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합니다.”

- ▶ **지난호 정답** 잠실야구장
- ▶ **지난호 정답자** 박병* 김정* 이승* 성명* 나예* 최성* 김호* 허재* 여경* 진길*



2023 서울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SEOUL 3-CUSHION
WORLD CUP
2023

2023.11.6. Mon. ~ 11.12. Sun

- 주최** IMB 세계캐롬당구연맹 ICEF 아시아캐롬당구연맹
- 주관**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대인당구연맹 서울특별시당구연맹
- 공식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KSPO
- 후원** HWD 엔씨 허리우드 장수램프 DynaIspheres KELME HANBAT CUESCO 하림
SILKROAD 실�크로드시멘트 CEPHAS universal JBS SM HUBRIS IWB
상쾌환 털털삼푸 FIVE&SIX afreecaTV classone VECTOR

